리 포 트
글로벌 이슈

유럽 암 완치자의 보험 가입 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적용 동향

이승주 연구원

요 약

유럽 내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암 유병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암 병력으로 인한 금융 차별 현상이 존재함. 이에 유럽 6개국은 암 완치자의 보험 가입 시 암 병력의 '잊혀질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함. 또한 유럽연합 의회는 유병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 회원국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신용지침 제안서에 담음. 그러나 유럽 보험협회는 동 권리의 전 회원국 적용은 보험회사의 보장력과 고지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유럽 내에서 암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유병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암 병력으로 인해 생존자의 보험 가입이나 보험 가입을 전제하는 대출 신청이 거절되는 등 금융 차별 현상이 존재함[1)]

- 2020년 기준 EU 국가의 암 생존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4.2%인 2천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35%는 암 확진 이후 10년 이상 생존한 장기 생존자에 속함[2)]
-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드문 프랑스의 경우, 통상적으로 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보험(Borrower Insurance)[3)]'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에 암 병력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였음[4)5)]

○ 이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유럽 6개국은 암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이전 병력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적용되는 시점을 법적으로 명시함(<표 1> 참조)

- 2016년 프랑스의 국가보건의료체계 현대화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개 EU 국가가 암 유병자의 잊혀질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동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에 제출된 상태임
- 각국이 규정하는 관련 법에 따라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는 시점 이후 보험회사는 암 완치자에 대해 위험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거나 보험계약자의 암 병력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사라짐
- 동 권리 적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보험가입자 혹은 보험회사로, 결정 주체에 따라 직면하는 리스크가 상이함
  - 보험가입자가 권리 적용을 결정할 시 가입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보험회사 입장에서 암

---

1) European cancer organization(2020), "Free from Cancer: Achieving Quality of Life for All Cancer Patients and Survivors"
2) De Angelis(2020), "Cancer Prevalence in Europe 2020: results from the EUROCARE-6 study"
3) 신용보험(Borrower Insurance)은 채무자의 사망, 장해, 질병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의학설문지(Medical questionaire) 작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4) Dumas A, Allodji R, Fresneau B, et al.(2017), "The right to be forgotten: a change in access to insurance and loans after childhood cancer?"
5) Legal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rectorate(2022), "How do I get a mortgage loan insurance contract?"

병력으로 인한 장기 영향의 리스크를 책정하기 어려움

- 이와 더불어 가입자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완치일, 권리 적용 시점 등) 스스로 숙지해야 하며, 해당 권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행사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보험회사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권리 적용을 결정할 시 보험가입자의 이전 병력에 대한 고지가 선행되는데, 이 경우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됨으로써 가입자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고지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낮음

• 예후가 좋은 암(위암, 갑상선암 등)의 경우 권리 적용 시점이 법에 명시된 5년 혹은 10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으며, 반대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침윤성 유방암, 버킷림프종 등)에 대해서는 위험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6)

○ 이와 더불어 2022년 유럽연합 의회는 유병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 회원국이 이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신용지침(Consumer Credit Directive)제안서에 포함하였음7)

• 제안에 따라 회원국은 치료 종료 이후 10년(18세 이전 병력이 있는 유병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암을 포함한 특정 전염병 및 비전염병 병력이 있는 유병자에 대해 평등한 금융 접근성(보험 및 대출 상품 등)을 보장해야 함

• 또한 회원국은 의료, 자연계 및 통계 전문가와 더불어 환우 단체,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유럽의약품청(EMA)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 목록을 작성해야 함

• 동 소비자 신용지침 제안서는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IMCO)의 승인 후 본회의 표결을 거칠 예정임8)

○ 그러나 동 제안에 대해 유럽 보험협회(Insurance Europe)는 잊혀질 권리의 전 회원국 적용은 보험회사의 보장력과 고지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9)

• 암과 더불어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까지 잊혀질 권리가 적용된다면 특정 소비자 집단이나 특정 보험상품에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리스크 풀링에 대한 어려움 가중 등)를 초래할 수 있음

- 잊혀질 권리 적용으로 보험회사가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면, 향후 책임준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평균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
- 리스크 산정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일부 보험상품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사라지게 됨으로써 보장공백이 확대될 수 있음

• 소비자 입장에서 광범위한 질병에 대한 잊혀질 권리 적용은 이전 병력 고지 여부에 대한 모호성을 증대시켜 비의도적인 고지의무 위반을 초래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행위규제(Code of conduct)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더불어 동 제도가 의학, 과학,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 발전에 발맞추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6) 암 외에도 HIV, C형 간염 등 만성 질환 또한 각 질환의 예후에 따라 상이하게 잊혀질 권리가 적용될 수 있음
7) European Parliament(2022),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sumer credits"
8) European Parliament(2022), "Deal on new rules to protect consumers from taking on too much debt"
9) Insurance Europe(2022), "Consumer Credit Directive: Including right to be forgotten for persons with prior diagnosis would be bad for consumers"

〈표 1〉 유럽 6개국 암 유병자 보험인수 시 ‘잊혀질 권리’ 적용 동향

구분	도입 연도	적용 시점[1]	연령 제한	보험상품	보험금 한도	권리 적용 주체
프랑스	2016	5년 경과	만 71세 이하	신용보험	42만 유로 20만 유로 (의적 심사 미포함)	보험가입자
룩셈부르크	2020	10년 경과 5년 경과(18세 이전 진단자)	만 70세 이하	신용생명 보험	100만 유로	보험가입자
벨기에	2020	10년 경과	-	신용보험	-	보험회사
네덜란드	2021	10년 경과 5년 경과(21세 이전 진단자)	만 71세 이하 만 61세 이하 (장례 보험)	생명보험 장례보험	27만 8004유로 (3년마다 CPI에 따라 조정됨)	보험가입자
포르투갈	2022	10년 경과 5년 경과(21세 이전 진단자)	-	신용보험 주택보험	-	보험가입자
루마니아	2022	7년 경과 5년 경과(18세 이전 진단자)	-	-	-	-

주: 1) ‘적용 시점’은 유병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재발 없이 공식적인 치료가 종료된 그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이탈리아 또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적용 시점 10년 경과 및 21세 이전 진단자의 경우 5년)을 담은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상태임
자료: GenRe(2022), “Remember to Forget – Insuring Cancer Survivors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